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2월 21일

CUOMO 주지사, 주정부 기관에게 가스값 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주유소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것을 지시하다

뉴욕커들이 주유소들의 바가지요금 의심 행위를 신고하도록 새로운 수신자 부담 핫라인과 웹사이트를 개설하다

공정한 상행위가 확립되도록 주유소를 점검하기 위해 뉴욕주가 지자체들과 함께 활동에 나서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국무부와 농업시장부에게 미국 전역의 휘발유값 인상으로 주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눠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국무부의 소비자보호국은 뉴욕커들이 주유소들의 바가지요금 의심 행위를 신고하도록 수신자 부담 핫라인과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미 전역에서 휘발유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음에 따라 우리는 뉴욕커들이 주유소들의 횡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자유 시장 방식이 보통 이러한 가격 상승의 원인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기에 소비자를 불공정하고 위법적인 관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800) 214-4372 의 휘발유 요금 핫라인으로 전화하면 휘발유 소매 가격의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인상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국은 온라인 소비자 민원 양식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 양식으로 뉴욕커들은 바가지 요금 또는 휘발유 판매량 속임수로 의심되는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에는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팁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http://www.dos.ny.gov/consumerprotection/consumer_resources/gas_gouging.html 를 방문하십시오.

“주유소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휘발유 정량을 속인다고 의심되는 경우 휘발유 가격 핫라인으로 연락하셔서 신고해주시요”라고 Cesar A. Perales 국무부장관이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열한 관행을 근절시키려면 실시간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orean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 및 지방 관리들, 농림부 및 마켓 측량부서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뉴욕주 전역의 주유수 점검에 나서 휘발유 정량을 판매하도록 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을 조성해나가며 휘발유 기반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MBWM 는 또한 지방 도량형 관리들에게 연락하여 새로운 웹사이트와 핫라인을 알려줄 것입니다.

뉴욕주 농무부 장관 Darrel J. Aubertine 은 Aubertine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불공정한 가격 정책을 막을 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할 자원을 제공하게 해준 주지사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주정부 기관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와 상공인들이 돈을 주고 구입하는 휘발유 제품의 품질과 정량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미 전역에서 휘발유 소매가가 올랐습니다. 이러한 가격 인상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재고가 회복될 때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1 월 2 일에서 2 월 15 일까지, 브렌트 원유가격이 배럴 당 \$4.56 또는 4% 인상되었고, 뉴욕주 평균 휘발유 소매가는 갤런 당 \$0.21 또는 5.6% 인상되어 가격의 상당 부분이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 월 15 일과 2 월 20 일 사이, 미국 평균 휘발유 소매가는 갤런당 거의 \$0.13 또는 3.5% 치솟은 데 반해, 뉴욕 휘발유가는 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갤런 당 \$0.05 또는 1.3% 올랐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